아! 6·25 죽고 나서야 만난 부부 58년만에 함께 묻히다

"마지막까지 눈을 못감으신 어머니의 한을 뒤늦게나마 풀었습니다."

오몽룡(61·광주시 북구 임동)씨에게 올 6·25는 남다르다. 경찰관으로 참전해 6·25전쟁 중 전사한 아버지 고 오종팔(전사 당시 25세) 경사의 유해를 58년만에 찾았기 때문이다.

영광전투 전사 경찰관 아버지 유해 찾아

광주 오몽룡씨, 어머니묘와 나란히 안장

지난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정년 퇴임한 오씨는 그동안 아버지의 유골을 찾느라 동분서주했다. 6·25 전쟁 당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동료 직원 중 한 사람이 "아버지가 영광 불갑산에서 북한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했다"고 말했던 것이 아버지를 찾는 유일한 끈이었다.

장년이 된 오씨는 영광 불갑산 인근 마을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러나 희망을 놓지 않았다. 젊은 나이에 홀몸이 된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전사했다는 마을 인근 야산을 다 뒤지다시피 했으나 아버지의 유골은 끝내 찾지 못했다. 이후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불갑산을 찾아 제사를 지냈다.

지난 2005년 3월 영광에 볼 일을 보러 간 오씨는 우연히 아버지와 함께 전투에 참여했다가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강모(76)씨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들었다. 1950년 7월 23일 영광·화순·순천·나주에서 차출된 경찰관 200여 명은 북한군 6사단에 맞서 싸우다 밤사이 150명이 몰살당했고, 시신들은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인근 야산에 수십 구씩 무더기로 파묻혔다는 것이다.

오씨는 곧바로 청와대와 경찰청, 보훈청 등 5개 기관에 진정서를 올렸고, 국방부와 경찰은 지난해 5월 16일 발굴작업과 함께 9개월에 걸친 유전자 감식작업을 거쳐 아버지의 유골을 확인했다. 발굴 당시 유골의 치아에서는 지름 2~3㎜의 금이 발견됐다. 살아생전 어머니의 말과 일치했다.

오씨는 "형과 여동생 등 가족 모두가 발굴 현장에 있었는데, 치아 주변에 박혀 있던 금을 보고 아버지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며 "당시 내 나이 서너 살 정도 됐는데, 도무지 기억나지 않던 아버지의 모습이 문득 떠올라 한없이 울었다"고 회상했다.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에 6월 25일을 애써 외면해 온 오씨. 하지만 가족 모두에게 올해 6월 25일은 뜻깊다. 오씨는 "이제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라며 "6·25 전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비참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6·25전쟁 당시 숨진 경찰관 9명의 합동 안장식을 열었다. 이날 안장식에서는 오씨의 어머니인 문복례(1989년 61세로 사망)씨도 남편 곁에 함께 안장됐다.

이날 안장된 유해는 지난해 5월 16일 영광군 묘량면 인근 야산에서 발굴된 경찰 전사자 33명의 유해 중 그 신원과 유가족이 확인된 고 오종팔·김계식·백일대·박방온·윤기일·최인수·기노상·김국양·박재복씨 등 9명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4일 광주시 북구 임동에 사는 오몽룡(61)씨가 58년 전인 1950년 7월 해남경찰서 근무 당시 찍은 선친의 사진을 가리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자살 끊이지 않는 병영

하사 투신 이어 장성서도 장병 목숨 끊어

군 장병 2명이 최근 부대 내 '집단 괴롭힘'과 군 부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잇따라 자살하면서 병영 문화 개선이 아직도 먼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장성의 육군 모 부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0분께 이 부대 병영 내 막사에서 이 부대 소속 최모(20) 일병이 보일러실 입구 난간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 헌병대는 최 일병의 수첩에서 '모든 것이 어둡고, 혼란스럽다. 현재는 지옥이다'라는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최 일병이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최 일병의 유족들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최 일병에 대해 군은 전역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족들은 최 일병이 지난해 9월 군에 입대한 뒤 ▲스트레스로 거식증을 앓아 몸무게가 20㎏가량이나 빠진 점 ▲군의관이 지휘관에게 최 일병에 대한 전역 조치를 권한 점 ▲특별관리 사병으로 분류된 점 등을 예로 들며 부대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대 관계자는 "부대 내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며 "최 일병의 현역 부적합 판정도 부족한 서류를 보충하기 위해 보류해둔 것일 뿐 최종적으로 부결시킨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새벽 4시50분께 육군 모 부대 김모(22) 하사가 광주시 북구 자신의 18층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했다.

군 헌병대 수사결과 김 하사의 자살은 선임 하사와 사병들의 '집단 괴롭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집단 괴롭힘에 가담한 A, B 두 하사와 C 상병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대장 등 부대 책임자들을 의법 처리키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수배 공익요원, 친척 상대 강도짓

근무지 이탈로 수배된 공익근무요원이 친척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강진경찰서는 24일 당숙모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강도상해)로 광주의 한 구청 공익근무요원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3일 오후 10시20분께 전남 강진군 도암면에 있는 당숙모 이모(여·63)씨 집에 들어가 이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금품을 요구하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배돼 PC방 등을 돌아다니며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씨의 집에 들어갔다가 농사일을 마친 이씨가 귀가하자 마스크를 쓰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명절 때 가끔 찾아가던 당숙모 집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숙모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당황해 강도짓을 했다"고 진술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이정섭 군수 일단 귀가

인사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던 이정섭 담양군수가 일단 귀가 조치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23일 낮 1시 이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최근 수술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10시간 가량 조사를 벌인 뒤 이날 밤 11시께 이 군수를 귀가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이 군수 재소환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군수는 공무원의 승진과 채용인사 과정에서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유명 치킨회사 중역 자살

24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원룸에서 국내 유명 치킨 체인회사 중역인 이모(49)씨가 가스 밸브에 목을 매 숨진 채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119로 신고한 이씨의 부하 직원(34)은 "이씨가 출근 시각이 지났는데도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원룸으로 찾아가보니 문이 잠겨져 있고 인기척도 없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원룸 바닥에서는 '가족과 회사에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보수단체, 반공 만화책 초등교 배포

학부모 항의 등 논란일자 회수 소동

광주지역 일부 초등학교에서 보수단체가 발간한 반공책자를 배부한 뒤 다시 회수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24일 광주시 동부교육청 등에 따르면 S, M, Y초교 등 일부 학교가 모 보수단체가 발간한 '6·25전쟁 바로 알리기' 만화를 학생에게 배부했다가 곧바로 회수에 나섰다.

Y초교 관계자는 "지난달 말 500여 부를 받아 별다른 검토 없이 3~6학년 학생에게 나눠줬는데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 등 논란이 있어 회수에 나섰다"고 말했다. M초교도 200여부를 받아 고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배부했으나 일부 표현 등에 논란이 일자 대부분을 다시 회수, 교무실에 보관 중이다. 이밖에 K, J초교 등도 배부한 200여부의 만화책을 학교로 다시 가져오도록 학생들에게 통지한 상태다.

64쪽 분량의 어른 손바닥 크기만한 이 책자는 반공사상을 강조하는 원색적인 표현이 많아 일부 진보진영에서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650만부가 제작된 이 만화는 일본의 식민통치와 독립운동, 해방과 북한의 남침준비, 6.25전쟁의 실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만화는 제주 4·3사건을 1948년 인민 해방군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제주도내 관공서와 경찰지서를 습격한 사건으로 묘사하는 등 특별법 제정 등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나서고 있는 현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다 층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시공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100원 팁' 시비 택시기사 폭행

쌍나팔

○…광주북부경찰은 24일 시비 끝에 우산 끝으로 택시 운전기사를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서모(25)씨를 폭행혐의로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3일 오전 6시40분께 광주시 북구 매곡동 A아파트 앞길에서 택시 운전기사 박모(42)씨의 차량 조수석 창문 틈 사이로 우산을 집어넣어 위협하고 차에서 내린 박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박씨의 택시에서 내리면서 1천원짜리 지폐 2장을 건네며 "거스름돈 100원은 팁이다"라고 말했는데,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박씨가 내 말을 듣고 따지자 화가나 얼굴 등을 때렸다"고 진술.

○…경찰은 서씨의 폭력에 대응해 주먹을 휘두른 박씨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